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7월 중순부터 검사중인원이 증가하기 시작

현재 100만명 정도가 검사 중으로 나옴. 검사 진단 시스템 마비 현상.

감염 재생산 지수 1 위험하지 않음.

매일 검사자 수는 어디에도 통계가 없음. 단지 음성율만 나옴.

제목 :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경: 신명기 4장 31-40절

Tag:

31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32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33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34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6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37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38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39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지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40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 없이 오래 살리라 (신4:31-40)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아무리 오랜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반면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허물과 실수는 잊어버리시고 덮어 주시는 하나님.

특히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잊어버리시는 하나님. 나는 잊지 못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다.

의학적으로 치매현상처럼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을 상태였을 때의 나인 것처럼 대우해 주신다는 뜻.

나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내가 죄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주신다는 뜻.

하나님은 허물은 잊고, 헌신은 기억하신다.

밋세바 불륜의 죄를 고백하는 다윗.

1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 32:1)

5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

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32:5)

-다윗은 밋세바와의 불륜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사하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죄는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죄가 죄인 이유는 악한 영향력 때문이다. 그래서 죄다. 피해가 있다. 마치 코를 비틀면 피가 나듯이 인과응보와 사필귀정이 분명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경계하신다.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계명은 우상숭배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도 신이긴 하나, 사람은 섬김의 대상으로의 신은 아니다. 성령의 담지자로서의 신이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섬김을 받을만한 존재는 아니다. (모든 이단은 이 오류에 빠져있다.)

특히 오늘 신명기 4장에서도 강조하시는 말씀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단순한 섬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별명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진짜 인격적인 신이시기 때문이다. 오직 인격성을 지닌 자만 이것을 이해한다.

하나님 외의 세상에 알려진 자칭 신이라 하는 어떤 우상도 다른 우상 섬긴다고 질투하지 못한다. 왜냐면 그들은 인격도 아니기 때문이다. 돌맹이와 나무쫓가리가 어찌 질투할 수 있는가?

사랑의 속성 가운데 이 나눌 수 없는 질투의 속성이 자녀들에게 오해를 부르기도 한다.

부모는 똑 같이 사랑하고 공평하게 사랑하는데도, 자식들은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보인다.

내가 병약해서 어머니가 나를 많이 챙겨 주셨는데, 내 동생은 지금도 엄마가 자기보다 형을 더 챙겨주었다고 푸념한다.

자식 입장에서는 편애, 부모 입장에서는 공평.

간혹 무심하고 오해하는 부모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고아와 과부를 부탁하시는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질투하신다. 왜냐면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신이기 때문이고, 생사회복의 주관자이기 때문이다.

31 네 하나님 여호와와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마고 약속까지 하셨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렇게 약속하셨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약속해 달라고 조르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내 자녀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

(믿음이라는 묘수)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이미 아

셨다. 사람들의 생각이 악해서 마귀의 꾀에 늘 넘어간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것.

구원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위한 큰 일을 행하는 자를 구원하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라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곧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믿음의 힘) 믿기만 하면, 다른 큰 것들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증거가 기도와 헌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계시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사실은 이것이 기적이요 선물) 선지자를 보내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도리를 알게 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맨 마지막에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도 예비 하셨다. 이 믿음의 도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점을 잊지 말자.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은 자신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길 원하신다.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 있지만,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

(여정)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애굽에 보내시고, 그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십계명을 주셨다.

역사 속에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기록하고 남겨 두셨다. 누구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18:18)

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22:18)

4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 26:4)

33절 말씀.

33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국민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결코 잊지 못할 일을 행하셨느냐? 오직 너희밖에 없다.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 후손인 너희들을 선택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당시의 모든 출애굽 기적을 직접 기억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므로 자손들에게 이 사건을 가르치고,

계명을 잊지 말고 지키도록 하라.

자자손손 이 계명을 전파해서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명을 잊어버린다. 기억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어간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들어간다. 우상숭배의 죄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그 삶은 피폐해 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민족들을 충동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

롭히게 하신다. 오래도록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사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 이런 일들이 오래도록 반복된다.

복된 계명을 자손들이 잊지 않도록 하라.

어떤 사람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요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더 복된 사람이다. 부요할 때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그 가정은 든든한 요새가 될 것이다.

39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와 하나님이지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40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 없이 오래 살리라 (신4:31-40)

계명을 잘 지켜서 복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도록 하라.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자랑이고, 영광이다.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를 사랑하고, 주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

이보다 더 큰 보험이 세상에 없다.

주를 섬겨 기도하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3년 전에 만나교회가 송내예배당을 4억5천만원에 매매하겠다고 했

을 때 우리는 5억5천만원을 고집했다. 빚을 갚아야 한다고 고집했다. 시세가 있는데 억지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기도했다.

(시세는 5.5, 급매는4.5)

이제 5억5천에 매매하겠다는 교회가 나타났다.

아마도 더 오를 것을 예상하고 더 오르기 전에 교회를 매입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가 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다는 생각을 하면 더 기도가 간절해 진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여러분도 이 기도에 동참하시길 바란다.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도의 변론 성경: 잠언 25장 8-15절

Tag:

8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잘 준비하고 행동과 말을 가다듬으라.
반드시 변론에는 상대방의 입장이 있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9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다투거든;이견이 있거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나투게 되거든
변론은 가하나, 은밀한 일은 누설치 말라
상대를 비방하지 말라.

‘교인 뒤에 숨지 마세요’

10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
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나 또한 악평이 나올 수 있다.

11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합리적인 말. 옳은 말이어도 경우에 어긋나는 말
이 있다.

-나는 틀린 소리는 하지 않아. 틀리진 않아도 잔소리요, 경우에는
합당하지 않지.

12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 고리와 정금 장식이니
라

슬기로운 책망; 지적질 보다는 방책이 중요함.

하나님과 소통하면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

기도하면 계시가 임한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며 결국에는 내가 형통하게 하신다.

문제는 우리는 대부분 슬기롭지 못하다.

슬기롭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며 끝까지 도전하라.

그 길로 가야만 한다면.

13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충성한다. 윤석렬.

그러나 그 사람이 악한자가 아닌 이상 그를 거스르지 말라.

14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15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쥐는
니라 (잠25:8-15)

오래 참는 것과 -오해는 오래 참을 필요가 있음. 상황이 바뀌면 생각도 바뀐다.

-사람에게 사심이 있으면 상황은 비뚤어지게 보인다.

-사람마다 자기의 유익한 대로 상황을 파악하게 되어 있다.

-자기에게 유익이 곧 정의로 착각할 수 있다.

부드러운 혀